도심권
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.8% 증가, 소매업 호조가 주원인

- 전년동월대비 13.8% = 소매업의 기여도 12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1.7%p
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※ 관련설명은 후술참조)
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20.6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4.1% 증가

- 소매업은 무점포소매의 호황과 가전제품·정보통신이 증가 전환됨에 따라 큰 폭의 오름세 유지
  - · 7월 소비증가 업종은 무점포소매, 음식료품·담배, 가전제품·정보통신
  - · 7월 소비감소 업종은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, 연료
  - · 무점포소매의 급증은 지난 11월 무점포소매 본사의 입지가 도심권으로 이전한데 따른 영향

-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,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오름폭 확대로 증가세
  - · 7월 소비증가 업종은 숙박업, 음식점업
  - · 7월 소비감소 업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



